

한·일·중 정상회의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

서울서 열린 3국 고위급회의서 합의 일본 언론 이르면 12월 개최설 보도

한·일·중 외교당국이 4년 가까이 열리지 못했던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고위급회의(SOM)에서는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개최 시기는 3국 정상회의 일정 조율 상황에 달려 있지만, 최대한 빨리 개최하자는 데 3국의 의지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개최 시점은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은 한국 정부가 12월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일본과 중국 정부에 타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3국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외교장관 회의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임 대변인은 이날 오전 3국 차관보급 당국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SOM 회의에 대해 “지난 4년간 정체되었던 3국 정부 간 협력이 재활성화되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일·중 대표들은 3국 정상들이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3국 정부 간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 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

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간 협의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농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날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SOM 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추진 일정과 성과사업 등을 논의했다.

미, 폴란드군 현대화에 2조6000억 원 지원

해외군사금융지원 대출 제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폴란드의 군 현대화에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폴란드의 국방 현대화를 위해 해외군사금융지원(FMF) 대출 방식으로 2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폴란드는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라며 “폴란드 안보는 나토 동부의 집단 방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폴란드는 이웃 국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지원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FMF는 미 국무부의 대표적인 군사지원

프로그램이다. FMF 지원을 받는 국가는 무상자금이나 대출을 이용해 각국 수요에 맞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일 수 있다. 폴란드는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차, 전투기 등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서방 무기들이 거쳐 가는 중심지로 통해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옛 소련제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 한국 등으로부터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FA-50 경공격기와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사들였으며 미국산 F-15 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건설 현장에서 2차대전 당시 대형 폭탄 발견 26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건설 현장에서 폭탄이 폭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투하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폭탄이 발견되자 경찰은 이날 안전 통제하에 이를 폭발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러시아 장교들 흑해함대 기밀 우크라에 팔았다”

게릴라 단체 아테시, 임금체불 영향

임금이 체불된 러시아군 병사들이 러시아 흑해 함대 기밀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팔아넘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가 최근 크림반도의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를 인용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러시아군 장교들이

크림반도의 게릴라 단체 ‘아테시(ATESH)’에 돈을 받고 러시아군 고위급 지휘관들 정보를 팔았다고 보도했다. 아테시가 수집한 정보는 우크라이나 국가 기관에 전달돼 지난주 러시아 흑해함대 공격 계획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테시는 이를 통해 흑해 함대 지도부의 활동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 정보가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정보총국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잇단 금리 인상에 세계 교역량 최대폭 감소

7월 무역 팬데믹 이후 가장 가팔라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 조짐을 보인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7월 세계 교역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잇단 금리 인상이 전 세계 상품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풀이된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이 발표한 세계무역모니터(World Trade Monitor)에 따르면 7월 세계 무역 규모는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3.2% 감소했다. 2020년 8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가파른 감소세다. 지난 6월 2.4% 감소에 이어 글로벌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이기도 하다. 7월에는 전월보다 0.6% 줄었다. 이런 무역의 위축은 주로 중국 무역의 감소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7월에 수입이 5.2%, 수출이 2.9% 각각 감소했다. 일본을 제외한 선진 아시아 국가 역시 수입이 5.2% 줄었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 아시아의 수출도 1.9% 감소했다.

제4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국방부 군사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에게 친근한 군사법원으로 다가가기 위해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군사법원

01 일 시 : 2023. 11. 10.(금) 10:00~17:00

02 장 소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서울 용산구)

03 대 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본선진출 10개팀)

04 팀별 참가인원 수 : 2~3명

05 방 법 : 추첨을 통해 군검사 5팀, 변호인 5팀 편성, 자유변론경연 방법

1. 문제 공지 및 신청서 등 접수 : 2023. 9. 11.(월)~ 10. 5.(목)

가. 문제 공지 : 군사법원 홈페이지(www.mcourt.mil.kr)

나. 신청서, 군검사의견서, 변론요지서 : 이메일로 접수 *추후 공지

2. 본선 진출팀 발표 : 2023. 10. 25.(수) 10개팀, 개별 및 홈페이지 공지

3. 시상내역

구 분	상 장	상 금
단 체 상 (5팀)	(최우수) 국방부장관상	200만원
	(우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	100만원
	(우수) 각 군 참모총장상	각 100만원
개 인 상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상	100만원

4. 기타

경연대회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02-748-1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최 : 국방부(군사법원)

◎ 후원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